

사회

교육으로 살아난 청자골 강진



강진교 김용석 교장과 3학년 학생들이 2011학년도 '수능 대학'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장학금 조성 매년 20억씩 교육투자 강진고 등 명문 탈바꿈 학생들 몰려 10년 넘게 줄던 인구 증가세 돌아서

전형적인 농촌인 '청자골' 강진은 2004년 만 해도 두 곳 뿐인 일반계 고교의 통제권이 검토됐다. 학생수가 급감하고, 성적도 전국 하위권 수준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5년 이후 강진 학생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진 고교생들은 2010학년도 대입에선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수리 '가'영역 1등급 비율 전국 공동 27위에 올랐다. 또 같은 영역에서 '공부 못하는' 8·9등급 감소율도 전국 6위를 기록했다.

한때 통제권이 거론됐던 학교들도 밀려드는 학생 때문에 학급수를 늘려야 하는 '행복한 고교'에 빠졌다. 그동안 '청자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교육이 살린 지역도 살아난다=강진군은 2004년 말 '교육 살리기'에 올인하기로 결심했다. 자녀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젊은 인구가 늘면서 학생수 감소는 물론 출산율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정부 예산까지 줄어드는 탓에 강진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강진군은 "교육은 투자와 비례"한다는 판단에 따라 2005년 4월 군민장학재단을 설립

하고, 5년동안 15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첫 해에만 24억여원이 들어왔고, 2010년 현재 189억원을 모았다.

강진읍에서 40년간 이발소를 운영해온 유홍규(62)씨는 이발비 600명분인 300만원을 기탁했고, 한 교회의 목사는 교인들이 낸 동전과 지폐가 섞인 헌금함을 통째로 냈다.

이렇게 주민들이 내놓은 장학금 중 매년 20억원 안팎이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관내 우수 중학생의 타지역 유학을 막기 위해 상위성적 4%의 중학생이 강진지역 고교로 진학할 경

우 미국에 5주 과정의 여학연수를 보내주는 등 다양한 혜택도 주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보조금만 83만원에 이른다.

전남도교육청도 최근 강진고에 40억원 규모의 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강진군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는 실력향상과 학생수 증감, 인구증가라는 값진 결실을 가져왔다.

2006년도에 12명에 불과했던 지역 고교생의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진학자 수는 4년만에 3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10

년 넘게 매년 100여명씩 감소하던 인구 수도 2008년 이후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강진의 일반·전문계 고교 5곳도 신입생이 몰려들면서 올해에만 100여명을 탈락시켰다.

◇강진 학교들도 신바람났다=강진의 실력 향상을 이끈 주역은 일반계고인 강진고와 성요셉여고다. 그 비결은 풍부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진고 학생은 대학생처럼 교사가 개설한 수업을 선택해 수강한다. 강진고의 또 다른 특징은 사교육이 없는 농촌의 특성을 장점으로 살렸다는 점이다. 서울 대치동의 유명

국·영·수 학원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매주 2차례씩 8시간 동안 맞춤형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은 성요셉여고도 학력증진프로그램과 서강대와 연계한 논술특강·캠프 운영, 유럽·중국 등 여학연수 등을 통해 실력을 높이고 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이사장인 황주홍 강진군수는 "교육에 대한 투자 덕분에 강진의 밝은 미래도 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관련선거 개입 의혹 구례군청 압수수색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30일 관련 선거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와 관련, 구례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구례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군수비서실·총무과·읍사무소·환경관리사무소 등 4곳 사무실의 컴퓨터 저장내용과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이중 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 군수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했던 김모씨가 최근 이 사업소 관리직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군수 선거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 구례군수 후보로 확정된 현 서기동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상대후보 동향과 등 관련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 접수에 수사에 착수했다.

/동부취재본부=허태민기자 hajia@

광주과학고 80명 선발 8월23~27일 접수

2011학년도 모집요강
한해 총 모집인원은 18개교, 1460명이다.

457명(31%)을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는 1단계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사정관이 2~3개월간 자료 검증, 방문 및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하고 2단계로 면접 결과와 내신성적을 종합해 합격자를 가린다.

내신은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을 반영하며 캠프 평가와 내신을 합쳐 합격 여부를 정한다. 광주과학고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24명(사회적 배려 대상자 5명 포함),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56명 등 모두 80명을 선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말·휴일 포근하고 화창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은 봄 날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2일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다"고 지난달 30일 예보했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2분 / 해질 19시 18분 / 달돋이 22시 25분 / 달질 07시 16분

주말여행 떠나볼까?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오전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6/22℃
목포	맑음	9/20℃
여수	맑음	9/19℃
완주	맑음	9/21℃
구례	맑음	2/23℃
애남	맑음	5/21℃
장흥	맑음	4/22℃
고흥	맑음	4/22℃
순천	맑음	6/22℃
영광	맑음	5/20℃
진주	맑음	6/21℃
전주	맑음	5/22℃
남원	맑음	2/21℃
홍산도	맑음	9/18℃

〈오전〉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후〉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날씨						
최저/최고	9/25	13/25	13/26	15/21	14/21	12/23

기획사 공연 취소 입장료 환불

10% 추가 배상
공연 기획·제작사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됐다면 입장료 전액을 환불해주는 것 외에 추가로 입장료의 1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SM엔터테인먼트와 ㈜드림메이커엔터테인먼트 공동 기획한 'SM 타운 라이브' 109 콘서트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이 공연을 열을 앞둔 작년 8월 7일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공연이 취소되면서 입장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신청을 냈다.

분쟁조정위는 공연업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점을 인정, 이들 두 회사가 총 913만750원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트위터 이용 불법 선거운동 첫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트위터' 이용자가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이용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이 트위터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입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인 트윗폴을 통해 지지정당과 선호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뒤, 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조사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팔로워(follower)'로 등록된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이 조사결과를 배포해 달라고 공조했으며, 경찰은 팔로워가 1만4000



김희중 광주대교구장 착좌식
김희중(가운데) 히지도 광주대교구장의 착좌식이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임동주교사당에서 거행됐다. 이날 착좌식에는 정진석 추기경,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종교·문화계 인사 1500여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했다. /최현배기자 choi@

무등경기장 차량털이 조심! 남양건설 기업 회생절차 개시

남양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약 5182억원, 부채 약 3821억원이었으며 지난해 실적은 영업이익의 약 5억1000만원, 당기순손실 약 25억 부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하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형렬 대표이사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까지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오는 6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8월25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 무등경기장과 인근 주차장 및 도로에서 차량털이가 잇따라 발생, 야구 관람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영업용 택시기사 전모(60·남구 백운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7일 밤 9시55분 광주시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김모(37·서구 금호동)씨의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몰래 떼어내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5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승용차만을 골라 조수석 문 잠금장치를 연 뒤 현금과 물품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8시경 무등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이모(27)씨의 오펜타 승용차에서 현금 2만원을 훔쳐간 차량털이범 박모(35·북구 신안동)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또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잇따른 차량털이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뢰·여권위조 혐의 체포

당진군수 구속영장 청구
수뢰 및 여권위조 혐의로 체포된 민중기 총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민군수에 대한 체포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여권위조 경위와 해외도피 기도 여부 등을 보강 조사했다. 민 군수는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출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군수는 지난달 28일 밤 서울 신월동에서 검거돼 서산지청으로 압송된 뒤 이날 오전까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여권위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 20대 "호기심에"

화장실 몰카
화장실 몰카 20대 "호기심에"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0일 여자 화장실에서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이용,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찍은 김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0시55분 서구 품앗동 모사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모(여·26)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캠코더로 찍은 뒤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적이 드문 모사가 건물 여자 화장실 칸막이에 1cm 크기의 구멍을 뚫은 뒤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 등을 촬영했는데,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몰카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이종행기자 golee@